광주과기원 '아시아 1위'

교수 1인당 논문 인용 수 세계 14위

영국 QS, 세계 대학평가

포스텍 25·서울대 260위

광주과학기술원의 연구 역량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일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가 시행한 올해 세계대학의 '교수 1인당 논문 인용 수' 평가 부문에서 세계에서 14위, 아시아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내에서는 포항공대(포스텍)가 세계에서 25위(아시아 2위), 카이스트 132위(아시아 8위), 서울대(아시아 52위)는 260위였다.

광주과기원은 지난해 세계 15위에서 한 계단 올랐으며 아시아 11개국 463개 대학 가운데서 2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켰다.

'교수 1인당 논문 인용 수' 1위는 캘리포니아 공대, 2위는 캘리포니아 대학(샌디에고), 3위는 스탠포드 대학이 차지했다.

'교수 1인당 논문 인용 수'는 대학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써 연구자의 논문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인용될수록 좋은 논문이며, 중요한 연구 실적이기 때문에 논문의 질과 수준을 알 수 있는 객관적 평가기준의 하나로 취급된다.

QS는 지난 2003년부터 세계 주요 대학 순위를 발표해왔으며, 논문 초록 및 인용 횟수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푸스(Scopus)'를 활용해 최근 5년간의 평가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선우중호 광주과기원장은 "대학의 학문적 성과와 연구수준이 세계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음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내년 학사과정 신입생 모집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 5년째 '표류'

'두 집 살림' 언제 합치나

충장로 부지 매각 유찰…화정동 건물도 '무용지물'

이설 계획 2012년으로 또 연기…국비 220억 요청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 계승을 위해 건립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 이설사업이 5년째 표류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2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4년 12월 123억원을 투입(시 23억원, 교과부 100억원), 광주시 서구 화정동 512번지(부지 2만 556㎡)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했다. 1967년에 지어진 동구 충장로 2가에 위치한 학생회관의 노후화에 따른 조치였다.

당초 총 사업비 430억원을 확보해 1단계로 123억원을 투입, 학생운동 참배실과 전시실, 기념탑, 관리실 등을 이설 또는 건립하는 한편 2단계로 학생회관 건물을 매각(300억원)해 2010년까지 나머지 도서관과 자료실 등을 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각이 좌절되면서 2단계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도심공동화의 영향으로 7차례에 걸친 매각절차에도 불구하고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는데다 최근 매각가격마저 105억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각계획이 무산되면서 광주시는 이설 완료 계획을 2012년으로 연기하고, 국비 220억원을 요청한 상태지만, 보훈처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해당시설이 국가 유적시설 등이 아닌 만큼 국비를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도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비 22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이 학생회관 이설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123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광주학생운동기념관마저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29명에 이르는 학생회관 직원 중 4명만 기념관에 상주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도 50명에 불과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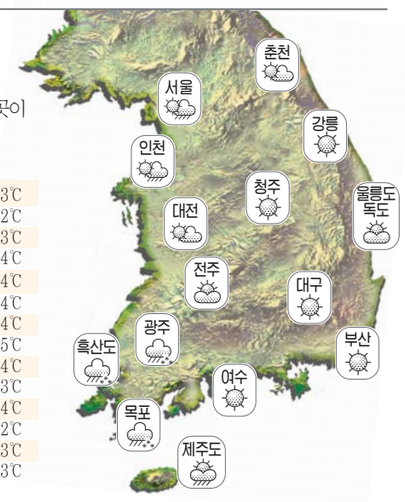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6시 55분 해짐 17시 36분 달뜸 17시 35분 달짐 07시 15분

노오란 은행잎 물결

지역에 따라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광 주	비 또는 눈	−1/13℃
목 포	비 또는 눈	2/12℃
여 수	구름조금	3/13℃
완 도	구름조금	2/14℃
구 례	맑은뒤 흐림	−3/14℃
해 남	흐린뒤 맑음	−1/14℃
장 흥	흐린뒤 맑음	−2/14℃
고 흥	구름조금	0/15℃
순 천	구름조금	0/14℃
영 광	비 또는 눈	−1/13℃
진 도	비 또는 눈	2/14℃
전 주	구름많음	−2/12℃
남 원	맑은뒤 흐림	−5/13℃
흑산도	비 또는 눈	5/1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3.0m
먼바다	서~북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관심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밀물	썰물
목포	01:52 14:34	07:11 19:47
여수	09:12 21:14	02:41 15:1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날 씨						
최저/최고	5/17	9/20	11/22	12/23	13/19	12/19

광주시-기업체 등 90곳

'그린 액션' 협약 체결

온실가스 감축 나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기업체, 백화점 및 대형 유통매장 등과 '광주 그린액션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오는 5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협약기관 대표, 빛고을 기후 지킴이,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실무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그린액션협약'을 체결한다.

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은 에너지를 2천 TOE(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이상 사용하는 기업체 23개소, 백화점과 대형 유통매장 16개소, 대형빌딩 12개소, 대학교 11개소, 공공기관 28개소 등 모두 90곳이다.

협약에 가입하는 이들 기관은 2015년까지 200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온실가스 감축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 시는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에 대비해 기업별 탄소배출량 할당 등 탄소시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한국전력거래소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자간 거래실적을 축적,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휠체어 마라톤' 2일 광주시 서구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에 참가한 휠체어 마라톤 선수들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힘차게 트랙을 돌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첫 눈 … 오늘 아침 영하권

낮부터 풀릴 듯

2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첫 눈이 내렸다. 3일 오전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낮부터는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아침 기온이 더욱 떨어지겠으며, 지역에 따라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2일 예보했다. 함평, 영광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적설량은 1~5㎝.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로 낮부터 추위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새벽 무등산에 첫 눈이 관측된 뒤 낮부터 광주시 북구와 순천, 진도 등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눈이 관측됐다. 올 첫 눈은 지난해(11월 18일)보다 16일 빨랐으며, 평년(11월 22일)보다는 20일 앞서 내렸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지법 장흥지원 '모의재판대회'

초·중생 열띤 경합 실전 방불

사법 사상 최초 개최

50일간 27팀 311명 참여

전국 초미니 법원이 사법사상 최초로 개최한 '초·중학생 모의재판대회'가 학생들의 열띤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최인규)은 2일 장흥지원에서 최우수상 3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팀 등 12팀에 대해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장흥초교 A팀은 '슈퍼마켓 절도사건'을 주제로, 미리 준비한 대본을 충실히 소화하는 한편, 감상문 권고 판결 등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강진 칠량중학교는 전교생 29명이 모두 참여해 지역실정에 맞게 시나리오를 설정해 장흥 안양초등학교와 함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일부 학교는 소환장, 공소장, 판결문, 탄원서, 교도관 복장, 수형복 등을 별도로 준비하거나 교장, 교감까지 나와 응원전을 펼치는 등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장흥지원 개원(1909년 11월 1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원 관할지역인 장흥과 강진군 46개 초·중학교 가운데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27개 팀(311명)이 참가해 50여일간 진행됐다.

최인규 장흥지원장은 "한 법원 관할지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모의 재판 경연대회를 연 것은 사법 사상 최초"라며 "학생들의 수준 높은 모의 재판은 지역민들은 물론, 기존 법조인들에게도 큰 감흥을 줬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